

실천목적에 따른 기독교사회복지실천 유형에 관한 소고

: 성경, 교회사 그리고 현 지교회 사례 중심으로

강 상 우

I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실천목적에 따른 기독교사회복지실천 유형”에 관한 연구로 “성경적 세계관에 근거한 사회복지실천모형: 성경해석을 중심으로”(강상우, 2011)에 관한 후속 연구다.¹⁾ 한 마디로 전(前) 연구에 대한 보론적(補論的) 성격을 지닌다고 하겠다. 구체적으로 기독교사회복지가 성경에서, 그리고 교회사에서 더 나아가 지교회(local church)의 복지실천현장에서 실천목적에 따라 사회복지실천의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해서 유형화(類型化)를 시도한 것이다.²⁾ 실천목적에 따른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유형화는 오늘날 기독교복지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목적이 전도나/사회적 책임이나’의 문제와, 더불어 더 나아가서 ‘양자 간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나’에 대한 문제(조흥식·이승열, 2010: 36-37 참조)에 간접적으로나마 해답을 어느 정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본다.

1) 연구문제와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그리고 연구모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실천목적에 따른 성경과 교회사의 사회복지실천 유형: [문헌연구]

a) [성경 사례]: 성경에서 실천목적에 따른 기독교사회복지실천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b) [교회사 사례]: 교회사에서 실천목적에 따른 기독교사회복지실천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연구문제 2: 실천목적에 따른 현지교회의 사회복지실천 유형: [매우 단순화된 설문조사]

a) [개교회의 복지프로그램의 종류]: 개교회에서 실천하고 있는 복지프로그램에 무엇이 있는가?
(편의를 위해 실천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수로 표시)

b) [개교회의 복지프로그램의 실천목적]: 개교회의 복지프로그램의 실천목적은 무엇인가?
(전도의 목적인지, 사회적 책임이 목적인지 아니면 둘 모두에 해당하는지로 표시)

c) [개교회의 복지프로그램의 실천방법]: 복지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무엇인가?
(교육이나, 물질적 방법이나 비물질적 방법이나로 표시)

1) 본 연구의 단순 설문조사는 광주광역시의 소재 4개 교회를 2009년 11월 15일과 11월 21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한 것으로서 강상우(2011)보다 시기적으로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강상우(2011)의 논문은 2005년에 준비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자의 입장에서 보면 본 연구는 강상우(2011)의 후속연구가 된 것임을 밝힌다.

2) 강상우(2011)는 사회복지실천 명령으로 (1) 대명령(The Great Commandment “사랑하라”), (2) 전도명령(위임명령 The Great Commission “전도(宣敎)하라”), 그리고 (3) 문화명령(The Cultural Mandate “청지기적 삶을 살라”)으로 나누고, 이들 명령들을 근거로 해서 사회복지실천 목적을 전도+사회적책임(대명령), 전도(전도명령), 사회적책임(문화명령)으로 구분하였다.

(2) 연구범위: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범위를 다룰 것이다.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기독교세계관과 기독교사회복지,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일반적 내용을, 그리고 성경적 사례와, 교회사적 사례 그리고 단순 설문조사를 통한 지교회의 사회복지 실천프로그램 사례를 통해서 실천목적에 따른 기독교 사회복지실천 유형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내용을 요약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먼저 본 연구는 무엇보다도 가치 개입(價値介入, value-judgement)³⁾적인 연구다. 제목에는 ‘기독교세계관’이라는 말을 생략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의 기독교사회복지실천 유형에 대한 고찰이기 때문이다. 성경 사례들, 교회사 사례들, 그리고 현(現) 지교회(支教會)에서의 사회복지실천 프로그램사례 등의 자료들의 분석을 통해 실천목적에 따른 기독교사회복지실천 유형을 도출하고자 한다. 현 지교회에서 실천하고 있는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사례는 매우 단순화된 설문조사(訪問調査)를 통해 현장에서 목회자들이 실천하고 있는 지교회의 복지프로그램의 실천이 무슨 목적으로 행해지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즉 어떤 실천방법을 통해 프로그램을 실천하는지 그리고 목회자 자신들에게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의 대상자를 목회자(牧會者)로 한 것은 목회자가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인(變因)이기 때문이며(유장춘, 2003; 백형남, 2004: 35; 방희덕, 1987: 447-475; 이해풍, 2004: 38; Rusaw and Swanson, 2008: 121-122)⁴⁾, 교회에서 실천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목회자가 그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최무열, 2003: 221-227; 한국자원봉사능력개발연구회, 1990: 136). 지 교회에서 실천하고 있는 복지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의 표적 집단(target group)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또는 사회복지실천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사회복지실천 목적이 전도의 수단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책임을 위한 목적에서 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아주 단순화된 설문조사의 내용은 목회자에게 현재 지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프로그램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실천되고 있는 복지프로그램이 어떤 실천방법에 입각하여 실천되고 있는지, 즉 교육을 중심으로 한 실천인지(didache), 물질적 원조를 중심으로 하는 실천인지(diakonia) 아니면 비물질적 원조를 중심으로 하는 실천인지(koinonia) 질문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복지프로그램의 실천목적이 전도를 위한 수단에 목적이 있는지, 아니면 사회적 책임에 목적이 있는지, 그것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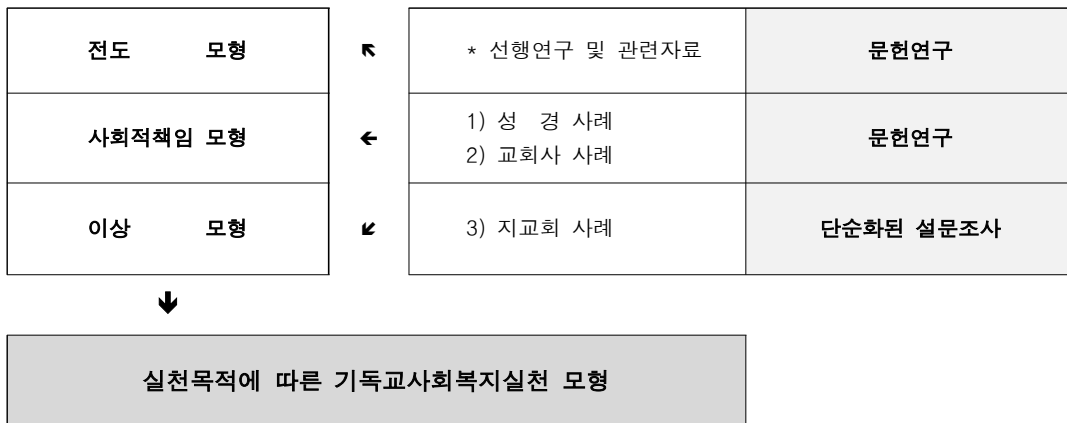
3) 니콜라스 윌터스토프는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자라는 사실은 기독교학문의 대헌장(Magna Carta)과 같다고 주장한다. 이 말의 의미는 모든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진리를 추구함에 자유를 가진다는 뜻이다. 나아가 기독교 학문이 다른 학문과 다른 것은 의도적이기 보다 결과적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기독교 학문은 복음에 충실하고자 하는 동기와 결단으로 자연히 나타나는 결과로 인해 다른 학문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신국원, 2005: 249 재인용); 김기원 교수도 자신의 논문에서 기독교사회복지학의 학문적 특징 중의 하나로 ‘가치개입적 학문’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김기원, 2001: 205); 참고로 가치중립을 강조하는 사회복지학의 연구를 보면 실질적으로 가치중립적이지 못하고 가치개입적인 연구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서구의 주류 사회복지학자들은 페이비언(fabian)사회주의 또는 민주적 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m)편에 서 있다. 이는 가치중립적(value-neutral) 또는 탈가치적(value-free)이론 지향만이 과학이라는 환원주의(reductional)나 과학일원론(unitarianism)에 대한 입장표명을 유보한 것이다.”(김상균 외 8인, 2007: 64); “사회복지실천에는 이론, 정책, 방법론, 실천과정 모두에 가치관이 배어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윤리적 갈등이 없거나 윤리적 결정과정이 필요 없는 실천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양옥경, 2004: 153).

4) 방희덕 (1987). “목회자의 사회복지 개발에 대한 태도”. 『신학논단』. 17. (1987). 447-475. 참조; “당신의 교회에서 사역을 정의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심중관구 목사이기 쉽다. 당신이 만일 담임 목사라면 사역을 정의하고 성도들에게 그 사역을 맡길 수 있는 위치에 있다.”(Rusaw and Swanson, 2008: 121-122); 하나의 예로 ‘한국교회의 사회봉사의 조사 연구’에서 밝힌 대로 교회의 사회사업 프로그램에 있어서 62.8%가 목회자에 의해서 제공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사회복지전문가라고 응답한 경우는 1.3%에 불과하다.(한국자원봉사능력개발연구회, 1990: 136). 한국자원봉사능력개발연구회 (1990). 『한국 교회 사회봉사 사업 조사연구』. 서울: 한국자원봉사능력개발원. 참조.

아니면 전도를 위한 수단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에 실천목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한 지교회의 선택은 굳이 장황하게 기술하자면, 조사목적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표집(표본추출)방법은 비확률적 표집의 한 방법인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이라고 할 수 있겠다.(황성동, 2010: 172). 연구자의 편의를 위해서 연구자가 평소에 알고 지내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표집을 한 것임을 밝힌다. 일반적으로 연구조사에서는 교회의 규모에 대해서 많이 고려하지만 본 연구는 그러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실천되어지고 있는 복지 프로그램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한 연구로 교회의 규모와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4) 연구모형: 다음과 같이 설계할 수 있다.

[그림: 실천목적에 따른 기독교사회복지실천 유형 연구모형]



2) 연구 제한점과 용어정의

(1) 연구 제한점: 사회복지실천모형의 구성요소 중 실천방법의 종류에 있어서 비물질적 부문에 해당하는 디아코니아(Diakonia, διακονια)와 물질적 부문에 해당하는 코이노니아(Koinonia, κοινωνια)를 구분함에 있어 이 두 단어는 어원적으로나 적용(適用)에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양(兩) 단어를 일도양단(一刀兩斷)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술(記述)의 편의상 디아코니아는 비물질적인 의미의 사회봉사로, 코이노니아는 물질적 경제적 원조를 의미하는 실천방법으로 구분하였다는 점을 밝힌다.(강상우, 2011)⁵⁾ 사회복지실천명령으로 (1) 대명령(The Great Commandment 사랑하

5) 디아코니아는 좀 더 넓은 의미로서 물질적(재정적)인 도움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도행전 6장 2절에서는 구제사역을 디아코니아라고 한다. 여기서 디아코니아가 말씀사역과 대조되므로 물질적 도움 일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사용된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42-44절과 마태복음 27장 55절, 마가복음 15장 41절, 누가복음 8장 3절, 사도행전 11장 29절 사도행전 12장 25절, 로마서 15장 25절 고린도후서 8장 19절, 히브리서 6장 10절 등이 있다.(오덕호, 2001: 4); 우리가 디아코니아에서 물질적 섬김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사역을 소홀히 하게 될 위험이 있다(오덕호, 2001: 6; Campell, 1932: 352-380.; 유장춘, 2001: 291 참조). Campell, J. (1932 December). "κοινων- and its Cognates in the New Testament,"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Vol.LI 32. 352-380. 참조.

라), (1) 전도명령(위임명령 The Great Commission 전도(宣敎)하라), 그리고 (3) 문화명령(The Cultural Mandate 청지기적 삶을 살라)으로 나누고, 이들 명령들을 근거로 해서 사회복지실천 목적을 전도+사회적책임(대명령), 전도(전도명령), 사회적책임(문화명령)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러한 구분 또한 개인의 임의적인 구분으로 볼 수 있다. 또 현지교회의 사회복지실천프로그램에 대한 아주 단순화된 설문조사에 있어 대상이 되는 지교회의 선택에 있어서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비확률 표집을 통한 의도적·임의적·편의적 표집을 취하였다. 그리고 무언가를 유형화(類型化)한다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틀(frame) 안으로 밀어 넣는 것으로써 일종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Procrustean bed)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⁶⁾

(2) 용어정의: 본고에서 분류한 모형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a) 전도모형(Mission Model: MM): 사회복지실천을 전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경우를 말한다. 과거 또는 오늘날 일부 보수교회에서 사용하였던 모형으로 이를 보수모형이라고도 한다. 전도모형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사회복지실천을 극단적인 전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극단적 전도모형’과 다른 하나는 극단적 전도의 수단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온화하게 사회복지를 전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온화한 전도모형’이 그것이다. 극단적 전도모형의 경우에는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b) 사회책임모형(Social Responsibility Model: SRM): 선한 사마리아인 모형, 청지기 모형으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목적을 사회적 책임, 즉 청지기적 삶이나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에서 찾는 모형이다. 이는 전도와는 별개로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c) 이상모형(Mission & Social Responsibility Model: M & SRM): 사회복지실천 목적을 전도와 사회적 책임에서 찾는 모형으로 이는 과거 1차, 2차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부흥과 함께 찾을 수 있는 모형으로 부흥모형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실천의 목적을 전도와 동시에 사회적 책임 양자에서 찾는 모형이다.

II 실천목적에 따른 기독교사회복지실천 유형

1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6) 다음도 참조하기 바랍니다. “베버는 복잡다단한 사회현상을 논리와 사유를 통해 정리한 모형을 이념형[理念型, idee typus]이라고 불렀다. 베버에 따르면 이념형은 ‘하나 또는 몇 가지 관점을 일방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얻어진다. [이념형은] 서로 분리, 분산되어 있고 대체로 발견되지만 때로는 발견되지 않는 수많은 개별 현상들을 통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별 현상들은 앞서 말한 일방적으로 강조된 관점들에 의해 하나의 정신적 구성체(mental construct)로 통합된다. 이 구성체는 순전히 구상의 산물이며, 따라서 현실에서는 결코 경험적으로 발견되지 않는다. 이것은 일종의 유토피아이다[Weber, 1949: 90] 이념형은 수십 억 명의 현실을 몇 가지 단순한 모형(model)으로 축소한다. 이념형은 막대하게 변주되는 경험들을 일반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외와 변칙으로 점철된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의 혼돈과 난맥 이면의 인과(因果)를 규명하기 위해 치러할 할 대가다.”(Morris, 2016 31) “이념형이란 복잡다단한 현실을 일반화한 것이어서 불가피하게 끝없이 예외가 따른다. 그렇다면 예외가 너무 많이 이론이 성립할 수 없다는 판단의 시점은 언제로 봐야 하나? 예외는 얼마나 많아야 많은 걸까?”(Morris, 2016: 41). Weber, Max (1949). *The Theory of Economic and Social Organization*. Glencoe, IL: Free Press. 참조.

기존 기독교사회복지실천 모형³⁾ 관련 연구들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있었다. (a) 성경해석의 중점을 둔 영락사회복지재단 연구팀(2005, 218-251; 김성이 외 6인 공저, 2005 참조)의 SILOAM 모형, (b) 텔파이 기법을 활용한 강기정(2004, 43-62)의 기독교복지 모형, 선교모형으로 제시된 (c) 통전(統全)적 선교모형(서정운, 1992a: 41; 서정운, 1992b: 198-199.), (d) 박중삼의 교회사회봉사의 사회복지적 실천모형 Model A·B·C(박중삼, 2003: 30), (e) 교회의 유형별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는 이종우(2000: 255-258)의 교회규모에 따른 유형, (f) 교회가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에 있어서 기반이 된다는 생태체계적 성격에서 접근한 도노소 에스코바(Donoso Escobar)의 교회 임무의 사회사업적 시각을 위한 실천모형(Escobar, 2001: 165-166), 생태체계이론을 근거로 한 (g) 박창우의 교회사회복지활동 실천모형(박창우, 2007: 박창우, 2008: 157-188). 그리고 (h) 이들 연구의 기존모형들이 가지고 있는 제함의(諸含意)를 통해서, 교회 중심적이며, 성경적 토대에 충실하면서,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포괄하는 이론적 모형으로 강상우(2011)의 연구가 있다.⁴⁾

2) 기독교사회복지실천 명령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명령은 무엇인가? 무엇에 근거해서 사회복지실천하여야 하는가? 본 연구자는 신·구약성경을 통해 볼 때 성경전체에 걸쳐 계속적으로 나오는 제(諸)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하라”는 대명령(大命令)과 “증거(證據)하라”는 전도명령(傳道命令, 委任命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지키고 다스리라”는 문화명령(文化命令)이다. 이들 명령들에서 왜 사회복지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이하 대부분의 내용은 강상우, 2011에서 가져옴).

(1) 제1명령: 대명령(The Great Commandment)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22:37-40; 막12:29-31 참조)

사랑하라는 명령 때문에 우리는 사회복지실천한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요3:16). 그의 사랑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십계명의 내용을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요약하여 말씀하셨다. 사랑이라는 단어인 아가페(agape, ἀγάπη)는 의지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가페적 사랑은 단순히 좋아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의 사랑이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나 거의 반 죽게 된 행인은 다른 행인들에게 결코 매력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분깃을 타서 허랑방탕하게 지낸 탕자(蕩子)도 형에게 사랑 받지 못하는 존재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강도당한 사람과 허랑방탕하게 지낸 탕자 이 둘 모두를 아가페적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

3) 여기 소개되고 있는 모델 이외에도 다양한 모형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로널드 J. 사이더(Ronald J. Sider)가 “A Model of Appropriate Evangelism in the Context of Social Service”에서 제시한 것도 하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Sider, 2005: 8-14 참조).

4) 강기정은 본 연구를 토대로 “여성가장을 위한 기독교사회복지 실천모형”을 제시하였다. 강기정·최광수(2006: 9-39) 참조; 이종우(2000). “새 천년을 위한 한국의 교회사회사업 실천모델에 관한 연구.” 『기독교사회복지』. 9. 255-258. 참조.

한 대상으로 뽑으시고 그들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눅10:25-37, 15:11-32). 홍정길(1990: 132)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경이 바이블(The Bible)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바이블(Bible)이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섬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근거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대명령’을 이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에게 가치 없는 사람들이란 없었다. 따라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라는 사역은 ‘아가페 사랑’이란 토대 위에서 즉, “사랑하라”는 대명령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기독교적 정의와 함께 사회복지의 기본정신이다(박성호, 2005: 42-43). 존 스토트는 사회봉사의 순수성에 관해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기기 위해 세상에 태어났다. 이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의 자연스러운 표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랑하면 가서 섬기게 되어 있는 것(we love, we go, we service)이다.’ 이 일을 하는데 숨은 동기란 없어야 한다.”(김성철 엮음, 2003: 249 재인용)고 말한다. 우리는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서 전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랑하라는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사회복지를 실천해야만 하는 것이다.

(2) 제2명령: 대위임 명령(The Great Commission)

예수님께서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權勢)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吩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28:18-20).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도하라는 대위임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 사회복지를 실천한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한다. 성경은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가르쳐주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말씀해 주셨고(요14:26), 삼위의 세 번째 위격에 대해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셨다(요15:26). 전도의 창시자인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다. 즉 전도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다.

한편, 선교 및 포교 활동을 중시하는 종교계의 특성상 사회복지활동의 동기에서 선교의 동기를 배제하기 힘들다. 즉, 처음에는 종교적 의무에 의해 사회복지 활동을 전개하더라도 그것을 통한 선교의 유혹은 뿌리치기 어렵게 된다. 그리고 종교가 절대 신념의 체계이다 보니, 종교적 의무감이 동기가 된 사회복지 행위에 있어 타 종교에 대한 배타성이 작용하는 특징이 나타나기도 한다(김상균 외, 2001: 98).

사회복지실천의 동기에서 선교의 동기를 배제하기 어렵다. 물론 극단적 선교의 수단으로서의 사회복지실천은 지양(止揚)해야겠지만, 실천의 현장에서 조심스럽게 선교를 위하여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선교적 동기를 가지고 사회복지를 실천한다.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통전적 선교관은 선교관 영혼구원관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까지도 포함한다고 함으로써 선교의 영역에서 사회복지실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스토트를 중심으로 수정 확대된 선교관은 선교를 전도와 사회적 책임의 수행으로 이해하게 되었다(박

종삼, 2000: 155). 즉, 스토트는 이전의 복음주의자들의 편협한 견해를 수정하면서 선교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명시된 지상명령에만 근거하여 이해하기보다는 예수의 사역 전체로 이해할 것을 주장하였다. 선교는 전도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의 수행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tott, 1989). “전도하라”는 명령은 이처럼 선교의 동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사회복지실천의 현장으로 안내한다.

(3) 제3명령: 문화명령(The Cultural Mandate)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고(창2:15)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은 전도와는 상관없이 “창지기로서의 삶을 살라”는 명령에 충실하기 위해서도 사회복지실천을 실천한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에게 위임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창1:28)고 명령하셨고 “또한 다스리고 지키라”(창2:15)고 하셨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아담에게 어떤 동산을 ‘다스리고’(work) ‘지키는’(take care of it) 임무가 부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문화명령이다. 창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위임은 바로 창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창지기의 삶을 살라는 문화명령에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창지기 의식은 하나님의 창조와 복지의도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한다. 만약 개인이나 국가가 재물에 대해 철저한 주인의식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창지기 의식의 진정한 의미는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원에 대한 동일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신 15:8-9)(최무열, 1999: 40).

하나님은 문화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창지기의 삶인 오이코노미아(oikonomia)로서 살아가길 원하신다. 이는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할 삶의 모습이다. 사실 경제학과 생태학이라는 단어가 창지기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경제학(economics: oikonomia)이라는 단어는 ‘집의 재산 관리인(執事)’을 의미하는 희랍단어에서 유래되었으며, 생태학(ecology)이라는 단어는 집(환경)을 연구한다는 희랍어 오이코스(oikos)와 로기아(logia)라는 단어들로부터 유래된 도덕철학으로서 창지기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경제라든가, 생태학 등에 창지기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복지실천에 있어서 창지기의 삶을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문화명령은 창지기적인 삶을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함으로써 인간과 관계된 피조계에 대한 복지실천을 요구한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즉, 사회 환경과 자연 환경에 대해서 창지기적 삶을 살라고 하신다. 주택문제와 토지문제 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준다. 또한 가정의 창지기로서, 지역사회의 창지기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 창지기적 삶을 살라는 것은 우리를 사회복지실천의 영역으로 부르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다.

사회복지실천의 근거는 무엇인가. 무슨 명령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실천하는가. 먼저 사랑하라는 명령 때문에 인간은 바로 복지를 실천할 수밖에 없다.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다. 전도하라는 명령을 쫓아서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더 나아가서 청지기로 살라는 명령에 의해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다. 사랑하라, 전도하라, 청지기로 살아라. 이 세 명령들은 그리스도인을 바로 사회복지실천의 현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다.

3) 기독교세계관의 사회복지 적용과 아름다운 유산인 사회적 책임, 그리고 기독교사회복지

(1) 기독교세계관의 사회복지 적용

기독교사회복지에 있어서 기독교세계관을 적용한다는(오정수, 2004: 181-194)³⁾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기독교적 신앙의 배경을 갖고 사회복지실천에 헌신하는 현장의 실천가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하여 끊임없이 자기반성의 성찰을 하게 된다. 복지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한 서비스의 제공만이 목적인가. 아니면 예배와 기도가 포함된 기독교적인 운영만으로 충분한가. 이러한 질문들은 실천가가 어느 세계관에 의해서 실천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냐에 따라서 다른 답을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나 그리스도인이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확고한 세계관의 기초 위에서 있지 않으면 동일한 사실이나 문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해석과 다른 결론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대로우 밀러(Darrow Miller)가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Ideas have Consequences)(Miller, 1998)고 말한 것처럼 인간은 우리 자신과 세계에 관하여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목적을 형성하고, 그 목적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돕는 사회복지의 실천과정에서도 적용된다. 사람의 본질, 그들이 처한 상황에 관한 이해에서 ‘우리가 믿는바’는 우리의 사회복지실천에 있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에 있어서 기독교세계관을 적용한다는 것은 실천과정에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 사회적 실재에 대한 해석, 가치 체계의 적용, 실천방법 등에서 기독교세계관의 틀(framework)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분명 사회복지실천의 범주에 기독교세계관을 적용하면 사회복지의 정책이나 현장의 프로그램실천 등에서 일반사회복지와 다른 동기와 정책, 결과 등이 나오게 된다.

(2) 기독교의 아름다운 유산인 사회적 책임

기독교에서의 사회적 책임은 역사적 유산이었다.⁵⁾ “당신이 특별히 당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문제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측면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당신은 결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Post-American, 1972: 1.; Sider, 2009: 80 재인용). “사회를 개선하려 노력하는 것은 세속주의가 아니라 사랑이다. 사회로부터 당신의 손을 씻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세속주의다.”(Sir Fred Catherwood, 전(前) IFES 부총재, 전 EU 부의장의 말이다. Brown, 2008: 131 재인용. 참고로 Fred Catherwood 경은

3) “만약 성경적 세계관의 정립이 없이 교회사회사업이 실천 된다면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 세속주의나 기타 다른 세계관의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오정수, 2004: 186), “세계관에 의한 변혁(transformation)이란 빈곤, 폭력, 무지, 우상숭배, 알코올 등 각종 사회 문제를 안고 있는 개인과 사회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개인의 삶과 사회구조를 만드시는 것이다.”(오정수, 2004: 191).

5) 기독교기관 등이 사회복지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김기원 교수는 당위론과 현실론이라는 두 가지 논리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김기원, 2003: 82-86) 기독교기관이 사회복지를 실시하는 것은 기독교교리 상(上) 당연히 수행해야 할 사업이라는 당위론과 기독교기관이 사회복지 실시하는 것은 기독교기관이 현실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현실론으로 구분되어 진다고 한다. 김기원 교수는 기독교기관들이 사회복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당위론에 입각하여 사회복지실천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故 마틴 로이드-존스[Martyn Lloyd-Jones] 목사의 사위다.) 로널드 J. 사이더(Ronald J. Sider)는 성경 전체의 흐름 중 큰 하나가 바로 사회적 책임임을 지적한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포로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선포하셨다는 것이다.

[구약] 예언자들의 메시지⁶⁾는 이스라엘이 가난한 자들을 학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켰음을 보여 준다. 물론 우상숭배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이유였다. 하지만 우리는 매우 자주 우상숭배라는 이스라엘의 '영적' 문제는 기억하는 반면, 경제적 착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는 성경의 가르침은 간과한다. (...)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눅4:18-19]을 영해함으로써, 그 말씀의 분명한 의미를 피하려고 한다. 분명히 다른 성경본문들이 나타내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들의 가리워진 마음을 열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고, 우리를 죄책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킨다는 말은 이사야서에 나온다. 구약의 배경에서 이 말씀은 의심할 나위 없이 물리적 억압과 포로상태를 언급했다. 누가복음 4장 18-19절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7장 18-23절에서 예수님은 물리적 육체적 문제를 언급하고 계심이 분명하다.(Sider, 2009: 88, 92-93.)

(3) 사회적 책임을 포함한 기독교사회복지

기독교사회복지는 사회적 책임을 포함한다.⁷⁾ 미국의 전국적인 설문조사에서 바나연구소(The Barna Research Group)는 “교회가 멋있게 보일 때가 언제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 질문에 대해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교회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Sider, 1998: 197 재인용)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책임이 기독교의 사명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기독교에서 사회봉사는 기본사명 중의 하나다. 교회의 사명은 예배만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 특히 개인, 가족, 민간단체, 국가가 기여하지 못하는 부문에서 소외되는 대상을 향해서 사회복지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기본사명으로 하고 있다.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구제와 사회봉사를 본질적인 사명으로 보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85.99%는 이에 대해서 동의하였고, 14.1%는 이에 대해서 동의하지

6) 참고로 김정진은 구약의 율법의 정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종교적인 신앙심에 근거한 자선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첫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다. 즉 과부와 고아 그리고 거지들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 연대를 규정하고 있다. 둘째, 이를 위해서 십일조법, 안식년, 희년법으로 분배정의를 실천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억제하려고 하였다. 셋째, 사회계급을 인정하지 않으며, 노예의 출현을 원칙적으로 거부하면서 노예해방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빈약한 자를 도와주는 자가 복이 있어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구해 주리라는 인과응보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시:41:1)(김정진, 2002: 183-184).

7) 김동배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은 크게 사회봉사(Social Service)와 사회행동(Social Action)으로의 구분은 엄격하지 않다고 한다. 왜냐하면 철저한 사회봉사는 필연적으로 정치적 의미를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성실한 사회행동은 이타주의적 헌신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김동배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회복지학 분야에서도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에 client의 문제해결을 위한 직접서비스(direct services, personal services)만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정치적 행동을 포함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으나, 대체로 이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불평등 구조가 심화되어 있는 제3세계에서의 사회복지영역은 사회변혁을 위한 행동을 주요 분야로 간주하고 있다고 한다. (...)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개인생활을 경건하게 하고 이웃을 섬기는 희생적 삶을 살아야 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맞는 정의와 공평이 실현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비판과 투쟁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교회는 개혁적인 사회활동을 보다 많이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 19세기 중엽 기독교사회주의(Christian Socialism)와 20세기 초 사회복음(Social Gospel), 그리고 현대의 해방신학(Liberation Theology)의 일관된 주장이다. 이러한 사상은 교회가 개인주의적 자선에만 머물러 있고, 인간의 권리를 확립하는 사회적 정의에 대한 관심은 결핍되어 있다고 비판한다.”(김동배, 1993: 99); 1935년 E. E. Schattschneider는 “새로운 정책은 새로운 정치를 낳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서 사회복지정책에의 참여는 필연적으로 정치적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Schattschneider, 1935: 288; 박시중, “보론” in Pierson, 2006: 434 재인용).

않았다. 이런 결과는 교파를 초월해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다만 예장통합측이 다른 교파보다 사회봉사 사명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더 높았고, 구세군은 목회자 전부가 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었다. 구세군 목회자는 교회의 기본사명이 사회봉사가 아니라 선교라고 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선교에는 개인구원과 사회구원을 나뉘는데, 사회봉사는 사회구원의 일부로 간주된다. 따라서 구세군이 사회봉사를 교회의 기본사명으로 보지는 않고 선교를 교회의 기본사명으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선교라는 개념 속에 사회봉사가 일부 포함된다. 즉 구세군은 사회봉사가 목적이 아니라 사회봉사를 통한 선교에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구세군 목회자 전부는 이 항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대부분 교단의 목회자는 구제와 사회봉사를 교회가 담당해야 할 기본사명으로 보고 있었으나, 구세군 목회자들은 구제나 사회봉사보다는 전도와 복음전파 등을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김미숙·홍석표·이만식·유장춘, 1999: 68-69) 다른 연구들에서도 목회자들의 대다수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다(성규탁·김동배·은준관·박준서, 1991: 293; 유장춘, 2000: 68-70. 신정환, 1989: 27; 최무열, 2003: 223 참조).⁸⁾

8) 신정환은 그의 연구에서 사회봉사활동의 목적을 '기독교 자체 목적의 하나'라고 응답한 경우가 92.39%에 이르고 있음은 실로 인식 면에서는 목회자들이 사회사업을 기독교의 중요한 실천적 측면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신정환, 1989: 27); 또 다른 연구 중 하나에서는 사회봉사활동의 목적을 선교사업의 일환으로 간주하는 목회자는 27.6%인 반면에 이를 교회의 본질적 사명으로 생각하는 목회자들은 60.2%나 되어 대다수가 선교 및 교육의 기능과 같이 사회봉사도 교회의 필수적 기능으로 보았다.(최무열, 2003: 223); 한국갤럽이 실시한 "2004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에 관한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개신교인들은 자신이 낸 헌금이 전도, 선교(24.9%)보다도 가난한 이웃을 돕는 데 더 많이(50.1%) 사용되기를 희망했다(2004, 1.13-1.31까지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가구 방문을 통한 1대 1개별 면접조사), 『국민일보』, (2005년, 8월 6일 22면).(김성이 외 6인 공저, 2005: 55-56. 3장 2번 각주 재인용). 서우석의 연구에 따르면 삼회참여 및 봉사활동을 하게 되는 중요한 동기가 무엇인지 물어 보았을 때, "지역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응답이 58.9%로 가장 많았으며, "전도활동 도움"이라는 응답이 20.6%로 그 다음이었고, 그 밖에 "교인문제 해결"(12.8%), "국가사회 문제해결"(4.4%)의 응답이었다고 한다.(서우석 in 한도현·서우석·노연희·이진구, 2006: 89-90). 박창용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박창용, 2002: 35-36 내용을 함하여 재구성)

변수	항목	빈도	백분율(%)
“사회(봉사)사업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중의 하나”라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동의하지 않는다.	1	1.7
	동의하는 편이다.	16	27.6
	전적으로 동의한다.	41	70.7
	합계	58	100.0
교회의 사회(봉사)사업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가?	정부나 사회복지기관에 의한 사회복지가 부족한 경우에만 교회에 사회봉사를 통하여 보충할 필요가 있다.	2	3.5
	정부나 사회복지기관에 의한 사회복지에 관계없이 교회는 사회봉사를 적극 실천해야 한다.	55	96.5
	합계	57	100.0
교회사회(봉사)사업활동에 대한 필요성 정도	매우 필요하다	36	62.1
	필요하다	22	37.9
	합계	58	100.0
교회사회(봉사)사업의 필요성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이유	교회성장	1	1.8
	사회선교적 사명	21	36.8
	지역사회복지증진	1	1.8
	이웃사랑의 신앙적 실천	33	57.9
	기타	1	1.8
합계	57	100.0	

<표: 교회의 사회봉사 사명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예장(합동)	예장(통합)	기장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전체
동의	81.8	92.6	83.3	83.8	77.4	81.6	.100.0	85.9
동의안함	18.2	7.4	16.7	16.2	22.6	18.4		14.1
계	100.0 (99)	100.0 (122)	100.0 (18)	100.0 (68)	100.0 (31)	100.0 (49)	100.0 (17)	100.0 (404)

* 註: $X^2 = 11.616$, $p = .071$

자료: 김미숙·홍석표·이만식·유장춘(1999: 68-69).

2 실천목적에 따른 기독교사회복지실천 유형

다음은 성경 사례, 교회사 사례, 그리고 매우 단순화된 설문조사[訪問]를 통한 현 지교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복지프로그램의 현황분석 등을 통해서 실천목적에 따른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유형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1) 성경 사례

성경 사례를 보면, 사회복지실천이 전도의 수단으로, 사회적 책임으로, 또는 전도와 사회적 책임으로 현장에서 실천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1) 전도의 수단 사례

...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왔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막1:14-15; 마3:1-2 참조).

...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눅5:1-11).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祝謝)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 (마14:15-21).

성경을 통해 전도의 사역에 대한 본문을 여러 곳에서 읽어 볼 수 있다. 물론 전도 자체도 넓은 의미에서 사회복지실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救援)을 선물로 받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영적인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구원의 측면은 복지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성경 어디에도 명시적으로

극단적 형태의 전도(極端的形態의 傳道)⁹⁾나 극단적 형태의 선교수단(極端的形態의 宣敎手段)으로서의 사회복지의 실천한 것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 없다.¹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경우라든가 아니면 사도들의 경우에도 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쳤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극단적 형태의 수단을 통해 사회복지를 실천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없다.

성경이 상대적으로 가장 극단적 형태로 분류할 수 있는 사례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사례인데 이 경우에도 먼저 예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예수님의 채워주심을 통해 제자들 스스로가 예수님이 자신의 주님이심을 고백한 경우다. 누가복음 5장 1-11절을 보면, 제자들은 밤이 되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잡은 고기가 없었다(눅5:5). 제자들의 삶의 풍족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는 제자들의 필요가 결핍 상태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눅5:4)고 말씀하셨다. 그 결과 두 배에 잡기도록 많은 고기를 얻는다(눅5:7). 제자들의 필요가 해소된 것이다. 그 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 경우 다른 사례에 비해 극단적인 형태를 보이지만 사회복지실천을 극단적으로 전도의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병이어(五餅二魚)의 이적과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어떤 측면에서는 전도를 위한 수단으로 먹을 것을 제공한 것으로 다분히 해석되어 질 수 있으나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에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영적인 ‘생명의 양식’[靈的糧食]이 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즉,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영적인 ‘빵’(양식)이 되심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용한 것으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극단적 전도의 수단으로의 사회복지실천과는 질적으로 다른 모습임을 알 수 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술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혼인잔치에서 부족한 포도주라는 필요(클라이언트의 need, wants, and problem)를 사람들에게 채워주시지만 이는 단순히 그들의 필요를 예수님이 채워주시기 위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영적 신랑[靈的新郎]이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결혼식에서 실질적으로 포도주를 공급해야 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신랑이었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실질적으로 포도주를 공급해 주신 분은 바로 가나의 혼인식에 참여한 신랑이 아니라 영적 신랑이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이다.

성경적 사례들은 예수님께서 클라이언트들의 필요(欲求)를 채워주시지만 그 채워주심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이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목적이 극단적 전도나 극단적인 선교의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는 오늘날 선교와 전도의 극단적 수단으로 사회복지를 실천하고자 하는 마인드를 가진 자들에게 시사(示唆)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9) 일부 네티즌(안티기독교 등)들이 지적하고 있는 선교형태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전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극단적 선교의 한 형태로서의 사회복지실천을 의미한다.

10)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구제와 봉사를 말씀 증거의 보조수단이나 부수적인 과제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의 당연한 의미이며, 삶의 한 부분으로 알고 있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는 봉사를 교회사역의 한 부분으로 인정함으로써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게 되었다. 교회가 말씀 증거 하는 일에만 몰두할 때 일어날 수 있었던 문제점들이 구제와 봉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해결되어 두 가지 사역을 전보다 원활하게 병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김한옥, 2001: 169).

(2) 사회적 책임 사례

… 어떤 사마리아 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눅10:30-36).

빈궁한 자의 아버도 되며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查實)하여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고 그 잇사이에서 검탈(劫奪)한 물건을 빼어 내었었느니라(욥29:16-17).

비록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우리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목적이 사회적 책임에 입각해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회복지 사역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다. 모세 이전 시대에 살았던 욥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義)가 어려운 자들에게 음식과 주거, 그리고 의복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욥24:1-21; 31:16-23). 사실 욥기서에서 욥이 단순한 사회봉사보다 더 많은 것들을 자신이 친히 실천하였었다고 말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 읽어 볼 수 있다.(Keller, 1989: 41; Watkins, 2003: 102 재인용.)¹¹⁾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발이의 발도 되고 …”(욥29:15 이하 참조). 그 이외에도 바울, 베드로, 야고보, 유다 그리고 요한 등은 자신들의 글들을 통해서 인간의 사회적 책임들을 중요시 한다. 때로는 이러한 사역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동의어로 여겨지기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갈6:1-2; 히13:15-16; 약1:27; 뱀전2:12; 요일3:14-17; 유23; 계2:9). 예수님께서 친히 들려주신 [선한]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어떠한가. 그가 강도만난 사람을 도운 것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자신이 강도만난 사람을 도움으로 해서 강도 만난 사람이 자신이 믿는 종교로 개종하기를 기대해서 그에게 그러한 봉사를 손길을 내밀었는가, 자신의 그러한 선행을 부(富)라든가 아니면 다른 그 어떤 무엇으로 보상받기를 기대하면서 그러한 행동을 하였는가. 그렇지 않다. 사마리아인은 그 자신에게 그 어떤 대가를 구하기 위해 그러한 자선을 행하지 않았으며, 그를 개종시킬 목적으로 그러한 자선을 행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단지 한 인간으로서 사마리아인은 선행을 행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마리아인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 것일지도 모른다.

(3) 전도와 사회적 책임의 혼합 사례

예수께서 …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榮光)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아래 엎드리어 사례(謝禮)하니 저는 사마리아 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눅17:11-19).

기독교사회복지는 전도(선교)와 더불어 사회적 책임이 동시에 실행¹²⁾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11) Keller, Timothy (1989). *Ministries of Mercy: The Call of the Jericho Road*. Grand Rapids, MI: Zondervan.

발견할 수 있다. 이 경우도 전도와 선교는 극단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도 매우 자연스럽게 일어난 현상이었다.

누가복음 17장 11-19절을 보라.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을 치료(治療: client의 need)해 주셨다. 그렇지만 치료받은 10명 중 오직 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전한다. 나머지 9명은 치료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이방인 문둥병자, 1명만이 치료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는 전도의 차원에서 사회복지실천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9명은 전도와는 상관없이 치료를 받았다. 이는 사회적 책임의 차원에서의 사회복지의 실천으로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인 예수님이 그러한 사실을 몰라서 이러한 사역을 행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시기 전에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을 것이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치료해주신 것은 바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목적이 단순히 영혼구원의 차원에서의 전도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행 또한 포함되고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은 신앙의 공동체 안과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독교인의 책임을 요약한다.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라는 문구는 만약 우리가 우연하게 가까이 있다거나 또는 그렇게 하는 것이 편리하다면 그 때만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기독교사회복지 사역자들이 주도권을 쥐고 착한 일을 할 기회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하다’라는 단어는 행동의 과정을 강조하는 에르가조마이(ergazomai, [εργαζομαι])에서 나왔다고 한다. 이 단어는 지속적인 노력의 개념과 함께 ‘노동하다, 활동적이다, 수행하다’를 의미한다고 한다.(Wuest, 1944: 174.; Watkins, 2003: 125-126 재인용). 이 단어에는 수동적인 것이 전혀 없다. 문제는 일회적인 기회가 아니라, 기독교인 삶 전체를 통해 돕는 것.(Ridderbos, 1953: 220.; Watkins, 2003: 126 재인용)이라고 한다.¹³⁾

(4) 성경 사례를 통해 본 사회복지실천 유형

기독교사회복지실천모형을 성경의 유형별로 구분하면, 전도모형과 사회적 책임모형, 그리고 이상적 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도모형은 사회복지실천을 전도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수적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지니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보수모형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구체적으로 전도모형은 오늘날 일부에서 주장되고 있듯이 극단적 전도의 수단으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극단적 전도모형과 극단적이지 않고, 다만 보이지 않게 전도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온화한 전도모형으로 나눌 수

12) “교회사회복지를 전도나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기 보다는 사회복지자체의 목적에 감정이입하여 조건 없는 사랑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김 인은 말한다.(김인, 2006: 164); “종교적 공동체들은 수혜자들이 자신들의 믿음체계를 공유해야 함을 주장하지 않고 그러한 필요에 반응한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슬람교 신자들, 힌두교 신자들, 정령승배자들에게 음식과 옷이 제공된다. 개종시키기 위한 노력도 행해지지 않는다. 도움을 주는 것은 그들이 배고프다는 것으로 충분하다.”(Irion, in Doka and Morgan, 2006: 203); “처음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교회 확장사업과 사회활동을 동시에 행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사회활동을 교회 확장 사업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의료 사업의 경우 그것은 복음전파의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의 잠정적이고 예비적인 방편이며, 복음전도를 위한 한 부수 사업 그 정도 이상의 소임을 다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의료사업의 재정배정이 적정선 이상으로 되지 않도록 하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였다.”(『大韓 예수教 長老會 百年史』,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1984), 73-74; . 노치준, 1995: 36 재인용).

13) Wuest, Kenneth S. (1994). *Galatians in the Greek New Testament*. Grand Rapids, MI: Eerdmans.; Ridderbos, Herman N. (1953). *The Epistle of Paul to the Churches of Galatia*. Grand Rapids, MI: Eerdmans.

있을 것이다. 사회적 책임모형은 청지기로 살라는 명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모형을 선한 사마리아인 모형, 또는 청지기 모형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다. 마지막 모형인 이상적 모형은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추구하는 모형으로 역사적으로 제1차, 2차 대부흥회에 경우에서 찾을 수 있는 모형이기 때문에 이를 부흥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앞의 성경 사례를 실천목적에 따른 사회복지실천 유형에 적용해 보기로 하자.

전도의 수단 중 온화한 전도모형은 존재하였지만, 극단적 전도모형은 존재하지 않았다. 온화한 전도 모형으로는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눅5:1-11)에,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마14:15-21)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혼인잔치의 포도주의 부족을 해결하셨을 때(요2:1-11)를 그 예로 들 수 있고, 사회적 책임을 위한 모형으로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눅10:25-37), 욥의 삶(욥29:15절 이하)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리고 전도와 사회적 책임 모형으로는 10명의 문둥병자의 치료(눅17:11-19)를 그 사례로 들 수 있다. 전도와 사회적 책임 모형에서 전도의 경우도 전도를 위한 극단적인 수단이 아니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성경 사례를 사회복지실천 유형별로 구별하면 다음과 같이 <표>로 나타낼 수 있다.

<표>: 성경 사례를 통해 본 사회복지실천 유형>			
실천모형	실천목적	성경사례	
전도 모형(보수모형)	전도의 수단	극단적 전도모형	· 존재하지 않음
		온화한 전도모형	· 제자 삼으심(눅5:1-11) · 오병이어 사건(마14:15-21) · 물을 포도주로 만듦(요2:1-11)
사회 책임모형(청지기 모형)	사회적 책임	·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눅10:25-37) · 욥의 삶(욥29:15절 이하)	
이상 모형(부흥모형)	전도 + 사회적 책임	· 열 명의 문둥병자의 치료(눅17:11-19)	

2) 교회사 사례

(1) 전도(선교)의 수단 사례

교회사를 통해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전도를 위한 극단적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외국의 선교 사례에서 접할 수 있는 것처럼 궁극적 의미의 전도와 그 정신이 멀리 떨어져 있는 “구호미(救護米) 크리스천”(rice Christian)의 사례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김형익 선교사가 우리나라의 군(軍)에서 행해지고 있는 “초코파이 세례”(陣中洗禮)에 대한 지적도 같은 맥락이라도 할 수 있겠다.(김형익, 2015: 36).

해외 선교사들은 rice Christian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오래 전에 배웠다. 그들은 예배를 끝 무렵 무료로 쌀을 나눠줄 때에는 건물에 사람들이 꽉 차고, 매 예배는 많은 회심자들을 배출하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한다.(Watkins, 2003: 188)¹⁾

“또 초코파이로 유혹해서 세례를 받게 하는 군대의 진중세례식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김형익, 2015: 36).

구호미 크리스천의 양성을 위해서 사회복지실천을 한다면 이는 전도의 궁극적 목표로부터 후퇴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뿐만 아니라, 이는 결과적으로 순수하게 전도를 실천하거나 순수하게 사회복지실천하는 것보다 더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들을 낳게 된다.²⁾ 자주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보기도 한다. 왜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공생애 동안 앞의 방법과 같이 극단적 전도의 수단으로 사회복지실천을 사용하지 않으셨는가.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의 구호미 크리스천 사례(물론, 진중 초코파이 세례)는 사회복지실천을 일종의 극단적인 전도의 수단화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초기선교의 경우 복음전파를 위한 수단³⁾과도 엄밀히 구별되어지는 사례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들어온 초기 선교사들은 당시 한국사회의 보건, 교육 분야의 열악함을 참작하여 의료사업과 교육 사업

1) “교회는 미국의 은혜와 풍요가 배급되는 주요 채널이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료로 주는 미국 밀가루를 얻기 위해 교회에 다니는 이른바 ‘밀가루 신자’들도 많이 나오게 되었다.”(강준만, 2004, 110).; “각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YMCA만 하더라도 ‘YMCA란 영어 수학 강습회를 하는 곳이다.’라는 말이 널리 퍼질 정도로 영어강습에 주력하였는데, 50년대 말까지 약 20만 명이 YMCA의 영어 강습회를 수강했다. 그렇게 영어를 익히면서 선교사나 미션계 학교를 배경으로 하면 미국 유학 가기도 쉽고 미국에 가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나중엔 ‘근자에는 미국 가기 위하여 교회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강준만, 2004, 111 재인용).

2) “가장 최우선적인 서비스는 전문적인 의료서비스여야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의료 행위를 덧붙이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The Family Care Center: FCC의 닥터 X의 말)한다.(Sider, 1999: 121).; 정무성은 우리나라 기독교사회복지자원의 심각한 3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말한다. (a) 기독교복지자원의 절대량이 부족함, (b) 교회들이 사회복지자원을 단순히 선교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태도, (c) 교회사회복지자원의 비조직화 문제 등이 그것이다. “... 특히 선교의 수단화와 결합하여 지나친 물량공세 위주의 활동은 사회복지사업의 효과성을 낮추고 수혜자의 의존성을 조장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우려까지도 있다.”고 한다.(정무성, 2005: 38-39 강조는 본 연구자).; 김동춘도 이와 비슷한 견해를 기술한다. “디아코니아가 이웃을 향한 선한 행위라는 점에서 전도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스런 귀결이어야지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없다.”(김동춘, 2003: 308 각주 4번); 김윤제도 “기독교인의 사랑은 사회적 관계를 초월해야 한다. 교회는 지역사회 복지사업 기관들과 협력해야 하며, 전도와 복지사업을 구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종삼은 한국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일을 교회의 사명으로 철저히 인식하지 못한 교회 내적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전도를 사회복지사업과 직결하여 전도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태도’ 때문이라고 한다.(박종삼, 1988: 145-146).

3) 위원단체의 경우 비기독교적 입장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최원규는 좀 더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위원기관들이 원조활동을 전개하면서도 실제로는 종종 선교활동에 치중하고 또 한국인에 대해 자못 교훈적이며 박애적인 태도로 원조를 제공했던 위원단체들에 대한 인상을 지니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한국인들은 위원의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위원이 종교우선적인 구호활동을 전개했고 원조단체의 진정한 활동목표가 구호 외의 다른 것이었다는 점이다.”(최원규, 1995: 44-45; 최무열, 2004: 167-168 참조). 최원규 (1995). “KAVA 40년사를 정리하고 나서.” 『외원사회사업기관활동사』. 서울: 흥익계. 참조.; 또한 북한에 대한 교회의 원조(diakonia)의 경우에도 이러한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교회와 교회단체마저도 북한을 순수한 마음으로 돕기보다는 선교에 급급하여 교회위주의, 보이기 위한 경쟁과 교회 또는 교단끼리의 경쟁이 심하다는 것이다. 순수한 북한 지원이 필요하다.”(배임호, 1999: 31).; 교회는 ‘성장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치유, 인간의 완성, 그리고 공동체 전체의 통합을 목표로 하여 자발적이고 통전적인 봉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한다.(김동배, 1993: 107).

을 시작하였다. 비록 복음전파를 위한 수단이었지만 한국 백성의 질병치료를 위한 의료사업과 무지를 계몽하기 위한 학교를 설립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은 한국 사회복지 발전에 기폭제가 되었고, 기독교 선교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었기(고양곤, 2001: 292) 때문이다. 그래서 ‘극단적 선교모형’과 구별하여 우리나라 초기선교의 사회복지실천은 그 유형(類型)상 온화한 선교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적 책임 사례

종교적 공동체들은 수혜자들이 자신들의 믿음체계를 공유해야 함을 주장하지 않고 그러한 필요에 반응한다. 도움을 필요 하는 이슬람교 신자들, 힌두교 신자들, 정령숭배자들에게 음식과 옷이 제공된다. 개종시키기 위한 노력도 행해지지 않는다. 도움을 주는 것은 그들이 배고프다는 것으로 충분하다.(Irion, in Doka, Morgan, 2006: 203).⁴⁾

요한 크리스소스톰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고 한다. “가난한 자들은 오직 하나의 권고가 있다. 그들의 필요이다. 그가 만약 모든 인간들 중에 가장 사악하다 할지라도 만약 그가 필요한 음식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그의 배고픔을 달래야 할 것이다.”(Keith-Lucas, 1962: 21; Watkins, 2003: 40 재인용).

사회적 책임 사례 등으로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약 2세기 경, 알렉산드리아의 기독교인들은 파라블라니라고 불리는 집단이 있었는데, 이 운동은 전염병으로 고통 받은 사람들을,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는 데도 불구하고 자진하여 돌본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되었다. 그들을 박해하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교리를 가르쳐서 회심케 하는 일은 결코 없었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파라블라니의 사랑의 실천을 보고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리스도교 신도가 15만 명을 헤아릴 만큼 커졌다. 이들 그리스도인들은 그 도시의 한 만 오천 명 가까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았다고 한다.(Kagawa, 2009: 81, 128). 요한 크리스소스톰은 특별한 집단들에게 원조를 제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어려움에 처한 누구에게나 그들의 주거지나 또는 지역 교회에의 수용성에 상관없이 원조해 주었다고 한다.(Keith-Lucas, 1972: 185-199).⁵⁾ 초기 기독교역사에서 이방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받았던 가장 큰 감동은 기독교정신에 바탕을 둔 상호간의 사랑과 공동체적인 자선활동이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기독교인들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 기독교인들은 원할 때마다 그리고 할 수 있을 때마다 얼마간의 동전을 가져왔다. 어느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었다.” 이렇게 모인 자금은 ‘축제나 파티’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거나, 그들이 죽었을 때 장례비용으로 사용되었다. 아무런 재산도 없고 부모도 없는 고아들과 나이 많은 노예들과 파산한 서원들, 광산이나, 섬,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 ... 이들은 모두 기독교인들이 낸 자금의 수혜자들이었다.” 기독교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행했던 자선활동

4) 데이비드 부소의 사역 중에는 전도와는 무관한 사회적 책임에 의한 사역이 있음을 다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소액대출을 신청 하라고 권유받은 사람들 중에 글래드 타이딩스 교회 교인들도 있었다. 데이비드(David Bussau)의 동료들과 사역자들이 사람들을 도움 방식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을 때 그 교회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다. 그러나 래리는 대출금을 얻기 위해 교회에 등록하거나 신앙을 가지는 ‘사이비 크리스천들’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다. 그래서 대출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전제 조건은 사역의 타당성과 빌리는 자의 인격이라고 설명했다.”(Tyndale, 2010: 374).

5) Keith-Lucas, Alan (1962). *The Church and Social Welfare*.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Keith-Lucas, Alan (1972). *Giving and Taking Help*.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참조.

의 전통을 광범위하게 확대시켰다. 그들은 사회복지가 전무했던 로마제국에서 소규모 복지국가를 운영한 셈이다.(Johnson, 2005: 204-205). 251년 로마의 기독교 교회는-신자들이 기부한 선물을 가지고-154명의 성직자와 1,500명에 달하는 과부와 고아, 빈민들을 돌보았다. 빈민들의 수만 해도 로마 시에서 가장 큰 조합원 수보다 많았다고 한다.(Brown, 2004: 62). 당시 배교자 율리아누스(Julianus, the Apostate) 황제는 “유대인들 중에 구걸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 불순한 갈릴리인들(기독교인)이 자신들 뿐만 아니라 우리 백성들의 가난까지도 돌보고 있는데도 정작 우리로부터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수치스럽다”라고 반문하였다고 한다.(Fisher, 1914; 박영호, 2001: 440 재인용; Johnson, 2005: 205; ; Neill, 1964: 37-38; Sider, 2005: 54 참조).⁶⁾

샤프베리 경(Lord Shaftsbury)으로 알려진 앤토니 에슐리 쿠퍼(Anthony Ashley Cooper)는 아마도 19세기에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 그는 정신이상자의 치료책을 개선하고, 공장에서의 노동착취에 반대하는 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섰으며, 값싼 도시주택을 지원하기도 했고,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무료교육을 지원하였다.(Clements, 1997: 99-100)고 한다. 윌리엄 윌버포스(William Wilberforce) 등으로 알려진 “클라팜 파(派)”(Clapham Sect, 또는 성도당 즉, the Saints)는 자유인이 된 노예들이 시에라리온(아프리카 서부 해안의 공화국)에 최초로 정착하게 된 것(1787), 노예매매 폐지(1807), 노예들을 식민지에 등록시킨 것(1820), 그로 인해 노예 밀매매가 종식되고 마침내 그들이 해방된 것(1833) 등을 주도적으로 하였다. 그들은 노예제 문제 외에도 형벌과 의회법 개혁, 공장과 관련된 법률제정에 관여했다. 또한 결투, 도박, 음주, 음란, 짐승을 이용한 잔인한 스포츠 등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였다.(Stott, 2005: 23-24).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떤가. 1899년 3월 1일자 『대한기독교인 회보』라는 신문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려 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군수 한 사람은 뇌물을 많이 써서 자기의 관직을 매관매직했는데, 그 사람이 서울을 떠나기 전에 자기가 부임할 그 북도 고을에 야소교(耶蘇教, 기독교)가 먼저 들어간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야소교가 들어간 고을은 싫으니, 야소교(耶蘇教)가 아직 안 들어간 영남 고을로 보내달라고 청원했다.(이만열, 1996: 38-39).

이러한 당시 기사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야소교인(耶蘇敎人), 즉 예수교인들이 있는 고을에 가면 제대로 가림주구(苛斂誅求)를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그 당시에도 기독교가 나름대로의 사회적 책임을 담당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예수교장로회의 사회신조」에서도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지금의 시각으로 보더라도 대단히 진보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을 다음과 같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인류를 형제로 믿으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

6) Fisher, G. P. (1914). *History of Church*, London: Hodder & Stoughton.; Neill, S. (1964). *A History of Christian Missions*. New York: Penguins. 참조.

화가 사회의 기초적 이상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일체의 유물론 교육, 유물사상 계급적 투쟁 혁명 수단에 의한 사회 개조와 반동적 탄압에 반대하고 나아가서 기독교적 진도와 교육보급, 사회사업을 확장하여 그리스도 속죄의 은사를 받고 갱생된 인격자로 사회 중견이 되어 사회조직체 중에 기독교정신이 활약하고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로 받은 수탁물로 알아 하나님과 인간을 위하여 공헌할 것으로 믿는 자이다. 이 이상에 기초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a) 인류의 권리와 기회균등.
- (b) 인종의 민족의 무차별 대우.
- (c) 혼인신성, 정조의 남, 녀 동등책임.
- (d) 아동의 인격존중, 소년의 노동금지.
- (e) 여자의 교육 및 지위 개선.
- (f) 공장 폐지 및 금주 촉진.
- (g) 노동자 교육, 노동 시간 단축.
- (h) 생산 및 소비에 관한 협조 기구설치.
- (i) 사용자, 피사용인 간의 협조 기구설치.
- (j) 소득세 및 상속세의 고율(高率)적 누진법의 제정.
- (k) 최저 임금법, 소작법, 사회보장법 제정.
- (l) 일요일 공휴법의 제정.
- (m) 보건의에 관한 입법 및 시설.(이만열, 1996: 92)⁷⁾

이승렬에 의하면, 한국개신교회 초기 사회봉사를 보면 그야말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시혜를 베풀어 주는 디아코니아적 성격을 가졌다고 한다. “의료선교에서 알렌(Horace N. Allen, 1858-1932)의 제증원 병원을 중심한 활동과 스크랜튼(W. B. Scranton, 1856-1922)의 시병원을 예로 볼 수 있다. 스크랜튼은 제증원을 선교적인 병원으로 보지 않았고, 참된 기독교적인 이웃사랑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병원을 무료로 운영하였다. 원래 그는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자 했으나, ‘시병원(施病院)’으로 명명하였다. 그야말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시혜를 베풀 수 있는 디아코니아적 성격을 가진 병원인 것이다.”(이승렬, 1999, 20, 강조는 본 연구자)⁸⁾

7) 개화기 한국교회 사회사업에 대한 G. P. 피셔(G. P. Fisher)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a) 병자와 부상자에 대한 과학적인 치료. (b) 빈민, 고아 등 사회사업에 대한 지적이고 조직적인 보호책. (c) 미신과 악령 숭배의 감소. (d) 어린이에 대한 존중과 여성에 대한 태도와 처우의 개선. (e) 조혼과 결혼관습의 개선. (f) 민주주의 사상, 한국인 자신에 대한 자기존중과 자인식. (g) 민주주의 인간관계와 계층차별의 타파. (h) 사회복지에 대한 봉사과 새로운 관심. (i) 알코올, 마약, 유독성 약 종류에 대한 계몽. (j) 한글의 보급과 일반화 등이다. (민경배, 1984: 37 재인용), 민경배 (1984). 『대한예수교회 백년사』.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참조; 공식적으로 문서화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 온 장로교 선교사들은 일곱 가지 사역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을 했다고 김한옥은 말한다. (a) 제자 삼기와 교회세우기, (b) 성경과 기도를 가르치는 일, (c) 교회 지도자 훈련 (d) 여자와 소년들을 교육시키는 일, (e)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학교, (f) 병원 사역, (g) 도서출판.(김한옥, 2001: 170. 16면 각주.)

8) 1932년 출판된 콕안런(Charles Allen Clark)선교사의 ‘교회사회사업’(Christian Social Service)은 한국교회의 사회적 책임으로서의 디아코니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민중들의 경제생활, 자선사업, 빈민구제, 고아와 양로사업, 난치병 환자를 위한 교회의 책임, 죄수와 교회의 책임, 폐장(廢娼)과 교회의 책임, 금주와 교회의 책임, 담배와 독약, 동물학대, 평민의 오락에까지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교회적인 특징으로서의 디아코니아적 과제를 언급하고 있다.(콕안런, 1932; Clark, 1932. 이승렬, 1999: 22-23 재인용). 콕안런 (1932). 『교회사회사업』. 조선예수교서회. Campell, J. (1932 December). “κοινων- and its Cognates in the New Testament,”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Vol.LI 32. 352-380. 참조.

찰스 파스테르나크(Charles Pasternak)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1913년 프랑스령 적도 아프리카(현재의 가봉)의 아라레테에서 나병이나, 다른 질병에 걸린 원주민을 위해 선교 병원을 세운 알베르트 슈바이처나, 1948년 케냐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사랑의 선교회를 창설한 마더 테레사 같은 선교사들은 ... 종교적인 개종과도 아무런 연관이 없다. 참된 선교사는 정신적으로는 물론 물질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애쓴다. 그들은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하려고 노력한다.”(Pasternak, 2005: 165).; 우리나라의 경우 1886년 여름 전국에 콜레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한다. 당시에 죽어가는 환자들을 수구문 밖으로나 길에 버려졌다.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콜레라로 버려진 환자들을 병원에 데려와 치료해 생명을 건져내기도 했다고 한다(최인

(3) 전도와 사회적 책임 통합 사례

교회사적으로 전도와 사회적 책임의 통합 사례⁹⁾는 제1, 2차 대각성운동의 결과로 나타난 사례들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다.¹⁰⁾

또한 18세기 유럽과 아메리카에는 이에 대한 몇 가지 놀라운 본보기가 있다. 양(兩)대륙을 모두 휘저어 놓은 복음주의 신앙 부흥을, 복음을 전파하고 죄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회심시켰다는 점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또한 자선활동이 널리 보급되게 만들었으며, 대서양을 사이에 둔 양 대륙의 사회에 심오한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Stott, 2005: 21)

존 웨슬리(John Wesley, 1703-1791)는 영국령 식민지에서 행해지고 있던 노예매매 행위에 대해서도 반대하며 싸웠는데, 이것은 훗날 ‘윈’ 연구회의 노예 폐지 결의(1815년)와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령(1863년 3월 11일)을 가져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고 한다. 그는 노예무역을 ‘모든 악행들의 총체’(Swaney, 1926: 1; 박영호, 2001: 481 재인용.)¹¹⁾라고 비난했다. 이러한 사회개혁운동을 위해 그의 일생동안 그가 사용한 돈은 3만 파운드 이상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존 웨슬리의 사회개혁운동은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첫째, 개인적 차원에서 훈련과 절제를 통한 자기발견을 추구한 경우다. 그는 근면, 성실, 청결, 절제를 역설했다. 그의 선교의 우선적인 대상은 도시의 빈민들, 노동자들, 광산의 광부들, 산업지역의 직조공과 같은 천민들이었다. 그의 훈련과 권면들은 가난한 자들, 자포자기 자들에게 가치의식과 성취동기를 부여함으로 그 가난을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자립, 자조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둘째, 인류애(人類愛)적 입장에서 이웃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대인적 차원의 사회봉사와 구제사업의 확장한 경우다. 웨슬리는 이웃에게 사랑의 실천을 수행하기 위해 고아원, 구빈원, 학교를 세웠다. 셋째, 제도적 개혁을 통한 사회변형의 사회적 차원의 경우다. 그는 노예제도의 반대, 노사관계 윤리, 계급차원¹²⁾ 극복을 위해 노력했다.(박영호, 2001: 481)¹³⁾ 다시 말해 사회복지를 위한 웨슬리의 사회봉사

진, 1999: 126). 최인진 (1999). 『한국사전사 1631-1945』. 눈빛. 참조; 이것은 전도의 목적이기보다는 전도와는 무관한 자연스러운 인도적 실천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9) 최무열은 “사실 초기 선교사 시대의 교회성장은 철저한 보수신앙의 바탕 위에 깊은 사회적 관심을 표명하면서 균형적인 성장을 이룩하였다.”고 한다.(최무열, 2004: 341).

10) 부흥은 사회개혁의 결정체다. 부흥은 인간의 행동과 조직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일종의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낸다. 단순히 사회적 행동만 가지고 인간의 상황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은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것은 소위 현대의 ‘사회복음’의 오류다. 사회복음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인간의 죄성이 거듭나는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고서는 어떠한 사회프로그램도 피상적이 된다. 한편 복음은 분명히 사회에 적용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깨닫기까지 우리는 복음이 우리 삶의 전체에 미치는 관련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참된 부흥은 복음의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종합한다. 또한 교회사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해 줄 것이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는 인상과는 반대로 많은 위대한 박애주의적 운동은 그 뿌리를 복음주의적 부흥에 두고 있다. 예를 들자면, 부흥의 영향으로 인해서 노예해방, 무역조합결성, 아동노동의 폐지, 여성차별 폐지, 수많은 자선기관과 선교단체, 첫 번째 대학의 설립, 그리고 YMCA 등의 운동이 생겨났다. 이것은 단지 이러한 많은 운동 가운데서 소수만 언급한 것이다.(Coleman, 2004: 52-53. 1장 14번 주).

11) Swaney, Charles (1926). *Episcopal Methodism and Slavery*; Boston: R. G. Badger.

12) Robert Wearmouth는 심지어 “여성해방이 웨슬레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스티븐스(Abel Stevens)는 “교회 역사상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래로 메도디스트(methodist)보다 더욱 여성적 특색이 풍부했던 때가 있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Hardesty, 1987: 151; 구금섭, 2004, 86 재인용). Hardesty, N. A. (1987). 『감리교운동과 여성해방』. 변신환 역. 전당사. 참조.

13) 프린스턴신학교의 교수로서, 무오(inerrancy)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성경을 변증했던 B. B. Warfield는 해방된 노예들에 대한 인종차별 폐지를 열렬히 주장했던 사람이었으며, 미국 자연보호협회(Audubon Society)의 초대회원이기도 했다.(Horton, 2004: 338-339).

운동에는 병자방문, 무료진료소운영, 국민건강계몽운동 등의 의료복지와 집 없는 극빈자들을 위한 그룹홈(group home)인 ‘나그네 친구회’, 노인(모자)복지, 신용조합 등을 운영했다. 종자돈 마련을 위한 기금모금 및 무이자 대출사업, 가난한 산업노동자들과 그 자녀들을 위한 교육사업인 ‘킹스우드 학교’를 운영했다. 그리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복지를 위한 사회구조변혁운동으로 노예제도 폐지운동, 여성해방운동, 교도소제도 개혁운동, 노동운동 등 영혼구원과 사회성화를 위한 복음전도와 복지서비스(welfare service)적 실천을 위해 일생을 바쳤던 것이다. 이처럼 웨슬리의 사역은 개인구원을 위한 복음을 전했지만 동시에 사회복지음을 설교했었고, 사회구원을 위해서도 전심전력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김영선, 2006: 81)¹⁴⁾

19세기 미국 사회에서도 사회참여와 복음전도가 쌍둥이 자매로서의 기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찰스 G. 피니(Charles G. Finney)는 복음주의자가 된 변호사로 그의 설교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인도되었다. 그러나 그는 ‘부흥’뿐만 아니라, ‘개혁’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피니는 일 년의 반은 오벨린 대학(Oberlin College)이라는 새로 설립된 복음주의 대학에서 신학교수로 일했는데, 그는 오벨린 대학이 흑인 학생들을 받아들여야만 강의를 하겠다고 했었다. 이에 대해 오벨린 대학은 이에 동의했고, 그 결과 미국에서 최초로 흑인을 정규학생으로 받아들인 대학이 되었다. 또한 여성의 존엄성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재발견한 오벨린 대학은 미국에서 최초로 여성에게 학위 학사를 수여한 대학이 되기도 했다. 사실, 오벨린 대학을 졸업한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여성 운동의 태동기에 핵심적인 지도자들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고, 복음주의자들은 미국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할 때와 1920년에 여성의 참정권을 얻어낼 때 모두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Dayton, 1976: Sider, 1998: 148 재인용)¹⁵⁾ 19세기 후반에는 구세군 A. B. 심슨(A. B. Simpson)이 주도한 기독교 선교연맹(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과 그리고 기타 수많은 단체들이 도시 빈민 봉사를 주요 관심사로 삼았다. 1895년 심슨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역’은 이제 “교회를 벗어나 슬럼가와 선교지를 향해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실천적인 삶으로 살아 내야하며,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의 신체적인 필요와 물질적인 빈궁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인간의 죄악만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에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던 것이다.(Magnuson, 1977: 44.; Snyder, 2005: 203-204 재인용)¹⁶⁾

(4) 교회사 사례를 통해 본 사회복지실천 유형

위의 내용을 유형별로 기독교사회복지실천모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전

14) 웨슬리는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종교이며(social religion)이며, ... 기독교를 고독한 종교(solitary religion)로 만드는 것은 기독교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The Work of John Wesley, Vol.5, [Grand Rapids, MI: Zondervan, 1958] 299.; 김영선, 2006: 81 재인용); 구금섭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한다. “웨슬리의 신앙운동은 내면적 영적 성화(Personal sanctification)를 통한 부흥운동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것이 18세기 영국사회를 변혁시키는 사회적 성화(Social sanctification)운동, 그중에서도 사회적 성화운동은 사회봉사(Social Service)차원과 사회적 구조변혁(Social Transformation)의 차원인 사회복지운동(Social Welfare Movement)으로 발전시켰다.”(구금섭, 2004: 61).

15) 찰스 피니의 부흥에 대한 23번째 강의에서 “교회의 중대한 임무는 세상을 개혁하는 것이다. ... 그리스도의 교회는 원래 개혁자 집단이 되도록 조직되었다. 기독교를 고백하는 것 자체가 세상의 전반적인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고백이며 사실상 그러한 맹세다.”라고 말한 것을 읽어 보면 놀라울 따름이다.(Dayton, 1976: 15-24; Stott, 2005: 25. 재인용).

16) Dayton, D. W. (1976). *Discovering an Evangelical Heritage*, New York: Harper & Row.; Magnuson, N. (1977). *Salvation in the Slums: Evangelical Social Work, 1865-1920*, Metuchen: Scarecrow Press.

도모형은 극단적 전도모형과 온화한 전도모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극단적 전도모형은 과거 식민지인 아프리카, 중미, 아시아에서 구호미 크리스천(Rice Christian)의 예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¹⁷⁾ 온화한 전도모형¹⁸⁾은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선교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회적 책임 모형의 사례로는 노예제도 폐지에 앞장선 윌버포스 등으로 대표되는 클라팜 파(派)와 샤프베리 경(卿)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경우로 이 유형은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차원에서 사회복지실천하는 경우다. 그리고 이상적 모형은 1차 2차 대(大)각성운동 때 피니와 웨슬리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들의 사역은 전도와 더불어 사회적 책임을 위하여 실천하는 경우다.

<표: 교회사 사례를 통해 본 사회복지실천 유형>

실천모형	실천목적	교회사적 사례	
전도 모형(보수모형)	전도의 수단	극단적 전도모형	· rice Christian 사례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온화한 전도모형	· 우리나라 초기선교 사례
사회 책임모형(청지기모형)	사회적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윌버포스(William Wilberforce) · 샤프베리 경(Lord Shaftsbury) · 우리나라 시병원(施病院) · <조선예수교장로회 사회신조> 	
이상 모형(부흥모형)	전도+ 사회적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2차 대각성운동 · 찰스 피니(Charles G. Finney) · 존 웨슬리(John Wesley) 	

17) “그레이엄(Franklin Graham)은 『이유 있는 반항』(Rebel with a Cause)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의 친구이자 세계의료선교회(World Medical Mission, 그레이엄 조직의 의료팀) 대표 리처드 퍼먼(Richard Furman) 박사는 ‘사마리탄스 퍼스(Samaritan’s Purse)가 세운 아프리카 병원에서는 환자가 복음주의 기독교이면 ‘플러스(+), 그렇지 않으면 ‘마이너스(-)를 차트에 적어 종교를 구분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수술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죽기 전에 구원의 기회를 베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수술보다 예수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퍼먼이 말을 이었다. 무엇보다 복음을 들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그레이엄의 생각이었다.”(Griswold, 2011: 120-121).

18) 하워드 A. 스나이더(Howard A. Snyder)의 다음과 같은 견해는 온화한 전도모형의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교회가 가난한 자의 편이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할 수 있는 순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1. 교회는 스스로 가난한 자들과 동일시해야 하고, 그들에게서 배워야 한다. 2. 교회는 가난한 자의 권리를 변호해야 한다. 3. 교회는 가난한 자에게 그리스도를 제시해야 한다. 4. 교회는 화해하고 화해시키고 가난한 자의 공동체, 가난한 자와 함께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스나이더는 왜 자신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가난한 자를 제시해야 한다”를 세 번째에 놓았는가에 대해서 “가난한 자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변호해 주고 그들에게서 배우려는 사람들만이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식 있는 전도자들은 가난한 자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미 그들 중에 계심을 깨닫는다. 이제 그분을 구주와 주님과 해방자로 선포하고 알리기만 하면 된다.”고 말한다. 즉 스나이더에 의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가 3번째 순위에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면(God-walk) 자연스럽게 하나님 이야기(God-talk)가 그들의 삶에 전례된다는 것이다.(Snyder, 2005: 347-350).

3) 현 지교회 사례

오늘날 지 교회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실천 프로그램이 어떤 목적으로 또 어떤 방법을 통해 실천되어지고 있는가. 유형화된 매우 간단한 설문조사¹⁹⁾를 통한 개교회의 복지실천프로그램의 분석을 통해 기독교사회복지실천모형의 유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개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1-1) 개교회의 복지프로그램의 종류: 교회에서 실천하고 있는 복지프로그램에는 무엇이 있는가.

A교회는 경로대학 운영, 정신지체 장애인을 위한 복지프로그램 등 2개의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고, B교회는 사랑의 컴퓨터, 1교인 1가정 후원, 청소년 가정지원, 비전스쿨, 징검다리 서비스 등 10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C교회는 장애우 기관 후원, 어르신 대접 프로그램, 기관김장봉사 등 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D교회는 호스피스 봉사팀, 샬롬의 집 봉사팀, 노인대학 등 3개의 사회복지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2) 개교회의 복지프로그램의 실천 목적: 개교회에서 실천하고 있는 복지프로그램의 목적은 무엇인가. 전도를 위한 수단이 목적인가,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기 위한 목적인가, 아니면 전도와 사회적 책임 양자 모두가 목적인가.

A교회는 2개의 프로그램 모두 프로그램의 실천목적이 전도수단+사회적 책임을 B교회는 전도의 수단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2개, 사회적 책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4개 그리고 전도수단+사회적 책임을 위한 프로그램이 4개였다. C교회는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 3개 모두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D교회는 모두 전도수단+사회적 책임을 담당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실천하고 있다.

(1-3) 복지프로그램의 실천방법: 실천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교육 중심적, 재정지원 중심적인가, 아니면 봉사 중심적인가 이 경우 중복선택이 가능하다).

A교회는 실천하고 있는 복지프로그램의 수는 2개인데, 복지실천방법으로 분류해보면, 교육(2)과 재정적 원조(0), 봉사(2)로 나타났다.

B교회는 실천복지프로그램의 수는 10개로, 복지실천방법으로는 교육(2), 재정적 원조(4), 그리고 봉사(3)로 나타났다.

C교회의 실천복지프로그램의 수는 3개로, 복지실천방법으로는 교육(0), 재정적 지원(2), 봉사(3)로 나타났다.

D교회는 실천복지프로그램의 수는 3개, 복지실천방법으로는 교육(2), 재정적 원조(0), 봉사(3)로 나타났다.

19) 단순 설문조사는 광주광역시 소재 4개 교회를 2009년 11월 15일과 11월 21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함.

(2) 복지프로그램의 실천목적

성경적인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목사들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A교회의 a목사는 전도수단+사회적 책임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다.

종교단체[교회]에서 그들의 헌신과 영원의 삶을 이어주는 시설을 갖추어 비영리 법인으로 그들을 섬겨야 하기 때문이다(A교회 a목사).

B교회의 b목사는 가장 성경적 모델로 전도수단+사회적 책임을 선택했고, 그 이유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교회는 생명구원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영적 성장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칭송(행2:45) 받고 더 많은 부흥하게 됨을 본다. 지역에서 인정받지 못한 교회의 전도는 성공할 수 있을까? 전도 안 해도 지역을 움직이는 교회가 된다면 전도는 자연발생적 일 것이다. 교회가 사회적 책임과 봉사를 철저히 실현함으로 지역의 중심에서면 교회의 성장은 가장 돋보일 것이다(B교회 b목사).

C교회의 c목사는 가장 성경적인 모델로 사회적 책임을 뽑고 있다. 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 실천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 변화와 전도에 접촉점이 될 수는 있으나, 그것이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다(C교회 c목사).

D교회의 d목사는 가장 성경적인 모델로 전도수단+사회적 책임을 뽑았으며, 그가 전도수단+사회적 책임을 가장 성경적인 모델로 생각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교회가 주체가 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은 궁극적으로 영혼구원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혼구원의 바탕에서 기독교적 인간관은 사랑의 지위 고하(高下), 연령, 성별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소중한 존재라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어떤 단체들과는 출발점이 다른 사회복지실천하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도 누구보다, 어느 단체보다도 분명하다고 사료(思料)되며, 가장 이상적인 복지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D교회 d목사).

현 지교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실천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떤 것은 전도(선교)의 수단으로, 어떤 것은 사회적 책임을 목적으로,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는 전도수단+사회적 책임이라는 목적을 위해 실천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천방법의 경우에도 교육, 재정적 원조, 봉사를 기본으로 하지만 실천하는 복지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사회복지실천 방법의 경우에도 복합적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천복지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따라서는 봉사와 재정적 원조의 조합으로, 때로는 봉사와 교육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봉사,

교육 그리고 재정적 원조의 형태로도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위의 간단한 설문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은 표로 나타낼 수 있다.

<표: 실천복지프로그램 유형에 따른 현 지교회의 사회복지실천분석>

교회	프로그램	실천목적			실천방법 ²⁰⁾		
	프로그램 수	전도의 수단	사회적 책임	전도+ 사회적 책임	교육 디다케	재정 디아코니아	봉사 코이노니아
A교회	2개	0	0	2	2	0	2
B교회	10개	2	4	4	2	4	3
C교회	3개	0	3	0	0	2	3
D교회	3개	0	0	3	2	0	3
합 계	18개	2	7	9	6	6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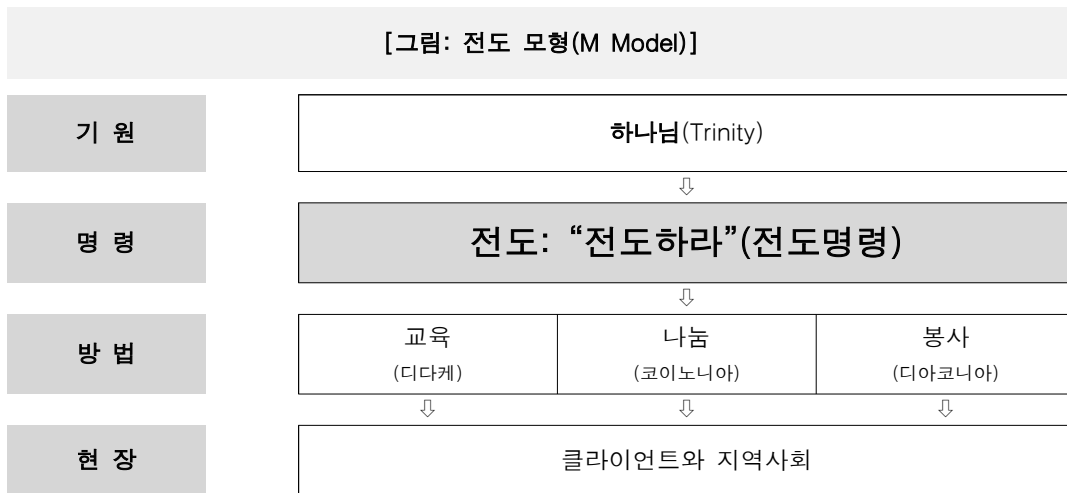
4) 실천목적에 따른 기독교사회복지실천 유형

사회복지실천의 목적에 따라 유형별로 기독교사회복지실천모형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목적이 무엇이나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실천의 근거가 되는 명령이 무엇이나는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목적이 무엇이나, 다시 말해 어떤 명령에 근거해서 사회복지실천하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종류의 모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전도실천모형(MModel: 보수모형: 온화한 전도모형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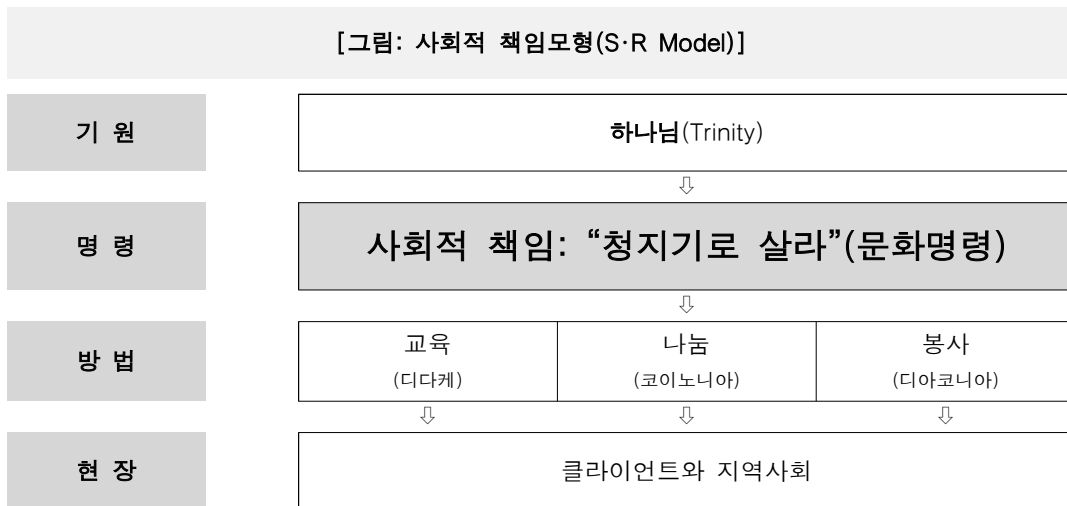
첫 번째 모형으로는 위임명령에 근거한 모형으로 사회복지실천의 목적을 전도에 둔 모형으로 '전도하라', '내 증인이 되어라'에 근거한 실천모형이다. 이는 직간접적이든 간에 전도의 수단으로 사회복지실천하는 경우로 이를 전도모형(M Model: 보수모형: 온화한 전도모형)이라고 부른다.

20) 실천방법의 선택은 복수로 존재한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에 따라 실천방법이 중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로 들어, 프로그램에 따라 봉사뿐만 아니라 복합적으로 봉사, 교육을 또는 봉사, 교육 그리고 재정적 지원 등을 실천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21) 성경의 사례에서 극단적 전도모형을 볼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의 경우 일반적으로 온화한 전도모형으로 존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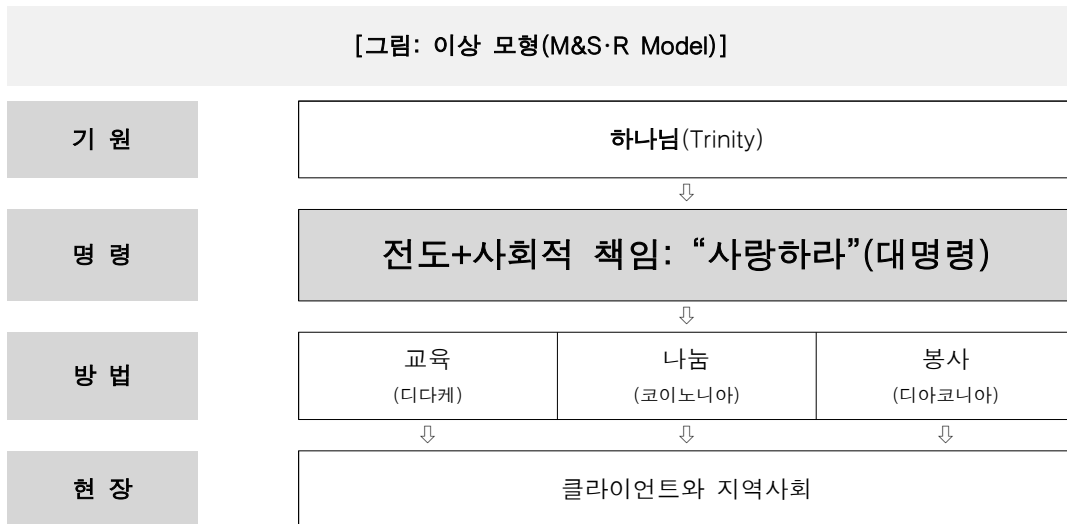
(2) 사회적 책임모형(S·RModel: 청지기 모형, 선한 사마리아인 모형):

문화명령에 근거한 모형으로 기독교사회복지의 실천목적은 문화명령인 ‘청지기로 살라’는 명령에 근거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모형이다. 실천목적에 있어 선교와는 무관하게 사회적 책임 즉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다 성실하게 보존하려고 하는 청지기적 삶을 위해 사회복지를 실천하고자 하는 모형이다.



(3) 이상 모형(M&S·RModel: 부흥모형):

사회적 책임과 전도를 모두 사회복지실천의 목적으로 하는 모형으로 대명령 즉 ‘사랑하라’라는 명령에 근거한 실천모형이다. 사랑하라는 명령은, ‘전도하라’하는 삶과 ‘칭지기로 살라’는 명령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사회복지실천의 목적이 전도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것임을 나타낸다.



Ⅲ 나아가는 말

1 요약

성경사례나, 교회사적 사례 그리고 현 지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형태 실천목적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할 경우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유형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a) 먼저 전도모형(保守모형: M Model)이다; 복지프로그램을 전도나 선교의 수단으로 사회복지실천하는 경우였다. (b) 사회적 책임모형(칭지기 모형, 선한 사마리아인 모형: S·R Model)이다; 복지프로그램을 전도와는 무관하게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c) 마지막으로 이상(理想) 모형(부흥모형: M&S·R Model)이다; 복지프로그램을 통해 전도와 더불어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실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지향해야 할 기독교사회복지실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실천의 모형은 이상적 모형 즉 부흥모형(M&S·R Model)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랑하라는 명령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만을 사랑하라는 말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방인들)과 이 창조세계(피조세계: 생태세계)를 사랑하라는 명령이 또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기독교사회복지실천모형은 어떠한 변화를 가져야 하는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더불어 기독교의 부정적 이미지의 변화를 위해서는 전도 중심의 실천모형보다는 사회적 책임 모형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이상 모형이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다시 말해 전도모형(전도의 수단) ⇨ 이상적 모형(전도+사회적 책임)이나, 사회적 책임 모형(이 경우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사회적 책임은 손봉호 교수가 말한 것처럼 구원과는 별개로 말 그대로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으로 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져야 하겠다.²²⁾

22) 로잔언약의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면 앞으로 나가야 할 기독교사회복지실천모형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영역에서 분명한 회개의 태도를 보여주었다. 19세기의 복음주의자들이 사회적 관심이라는 최전방에 있었던 반면, 20세기의 복음주의자들은 역전된 모습을 보여 주었고 많은 경우 그 영역에서 완전히 후퇴해 버렸다. 사회참여에 대한 이러한 불만족은 로잔대회에서 극에 달해 “로잔 언약”의 다섯 번째 조항에 표현되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창조주이시며 심판자이심을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사회 어디서나 정의와 화해를 이루시고 인간을 모든 종류의 억압에서 해방시키려는 하나님의 관심에 동참해야 한다. ... 이 점을 우리가 그동안 등한시 여긴 것과, 때로 복음전도와 사회참여를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한 것을 회개한다. 사람과의 화해가 곧 하나님과의 화해는 아니며, 사회행동이 곧 전도는 아니며, 또한 정치적 해방이 곧 구원은 아닐지라도, 복음전도와 사회, 정치적 참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두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왜냐하면, 두 가지 모두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우리의 교리, 우리 이웃을 위한 우리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순종을 위한 필수적 표현들이기 때문이다. 구원의 소식은 모든 종류의 소외와 압제와 차별에 대한 심판의 소식을 내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과 불의가 있는 곳 어디서나 이를 규탄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로잔언약, 5항)(Lane, 2008: 454-455).; 이원규의 분석에 의하면 참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교세확장에 더 관심이 있다는 인상은 천주교 35.1%, 불교 36.6%인데 비해 개신교는 76.0%의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이원규, 2000: 292).; 김선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하셨다. 간혹 이웃을 향한 순수한 기독교인의 봉사가 의도적으로 전도와 혼합되어 강요될 때 요구호자들에게 혼돈과 오해를 주고 순수한 목적까지도 달성하지 못하는 실패를 야기(惹起)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전도와 사회복지 사업을 구분하여 나아갈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김선태, 2005: 552).; 반룬(Hendrik William van Loon)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그러나 어리석은 사상을 가진 이 빌어먹을 예수쟁이들은 어떤 대가를 거절했다. 아니, 심지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까지 내놓았고, 굶주린 자들을 먹여으며, 행려자들을 자신들의 숙소에서 재우기까지 했다. 전부 다, 아무 대가 없이.”(van Loon, 2000: 72).

참고문헌

- 강기정 (2004.봄).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기독교 복지모형 개발.” 『백석저널』. 5. 43-62.
- 강기정·최광수 (2006.12). “‘룻’을 통한 여성가장 자립지원체계 모색.” 『신앙과 학문』. 11(2). 9-39. <http://www.worldview.or.kr/library/article/640>.
- 강상우 (2011.3). “성경적 세계관에 근거한 사회복지실천모형.” 『신앙과 학문』. 16(1). 7-36. <http://www.worldview.or.kr/library/article/995>.
- 강준만 (2004). 『한국 현대사 산책: 1950년대편 2권』. 서울: 인물과 사상사.
- 고양곤 (2001). “한국기독교 사회복지의 전망과 발전 방향.” 『기독교와 사회복지』. 홍익재.
- 구금섭 (2004.10). “John Wesley의 사회복지사상에 관한 연구.” 『교회사회사업』. 2. 61-110.
- 김기원 (2001). “기독교사회복지의 학문적 정체성에 관한 연구.” 『서울장신논단』. 9. 197-227.
- 김기원 (2003.10). “탈세속화와 기독교사회복지 활성화방안.” 『교회사회사업』. 1. 65-114.
- 김동배 (1993). “기독교 사회봉사의 비판적 고찰: 그 한계성과 가능성.” 『연세사회복지연구』. 1. 93-119.
- 김동춘 (2003). “교회적 디아코니아와 국가적 사회복지: 사회복지의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교회적 대안인가?.” 『성경과 신학』. 한국복음주의신학회. 305-330.
- 김미숙·홍석표·이만식·유장춘 공저 (1999). 『종교계의 사회복지활동 현황과 활성화방안 연구: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상균 외 8인 공저 (2007). 『사회복지개론』. 개정2판. 파주: 나남출판.
- 김상균 외 (2001). 『사회복지개론』. 서울: 나남.
- 김선태 (2005). 『선교복지학개론: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 서울: 카이로스.
- 김성이 외 6인 (2005). 『교회사회복지의 철학과 방법』. 서울: 나눔의집.
- 김성철 위임 (2003). 『교회사회복지실천론』. 한국강해설교학교출판부/한국노인복지협의회.
- 김영선 (2006). “존 웨슬리의 사회복지 목회.” 『한국개혁신학논문집』. 19. 81-101.
- 김인 (2006). “한국교회사회복지의 정책과제.” 『신학과 사회』. 20(1). 147-184.
- 김정진 (2002). “기독교사상과 사회복지실천 이념에 관한 연구.” 나사렛학술원 편. 『기독교와 인간복지』. 천안: 나사렛대학교출판사.
- 김환옥 (2001). “기독교 사회봉사신학 정립의 필요성.” 『성경과 신학』. 29. 161-188.
- 김형익 (2015).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1판4쇄. 서울: 생명의말씀사.
- 노치준 (1995). 『한국의 교회조직』. 서울: 민영사.
- 박성호 (2005). 『한국의 종교와 사회복지』. 서울: 제이앤씨.
- 박영호 (2001). 『기독교사회복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박종삼 (1988). “한국의 개신교회와 사회복지.” 『한국사회복지학』. 11. 134-147.
- 박종삼 (2003). 『교회사회봉사 이해와 실천』. 서울: 인간과복지.
- 박창용 (2002). “교회사회사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창우 (2007). “교회사회복지활동 결정요인에 따른 실천모형 개발-생태체계이론에 근거하여.”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창우 (2008). “교회사회복지활동 결정요인에 따른 실천모형개발.” 『신앙과 학문』. 3(2). 157-188. <http://www.worldview.or.kr/library/article/568>.
- 배임호 (1999.6).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 미국의 교포교회, 선교단체 및 국제구호단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8. 9-33.
- 백형남 (2004). “기독교 사회복지 기관의 사회복지 정체성과 교회의 사회복지 역할 연구.” 목

- 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정운 (1992a). “선교신학에서 본 사회봉사.”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 서울: 한울.
- 서정운 (1992b). “2000년대를 향한 선교신학.” 『신학과 교육』. 서울: 장신대출판부.
- 성규탁·김동배·은준관·박준서 (1991). “한국교회의 사회복지 참여에 관한 연구.” 『신학논단』. 19. 247-296.
- 신국원 (2005). 『니고데모의 안경』. 서울: IVP.
- 신정환 (1989). “목회자들의 사회복지의식과 개교회 사회복지사업실태.”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옥경 (2004). “6장.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윤리적 결정모델.” 양옥경 외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서울: 나눔의집. 143-166.
- 영락사회복지재단연구팀 (2005). “교회사회복지의 철학과 방법.”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와 기독교 생명운동』. 서울: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218-251.
- 오덕호 (2001). “성경에 나타난 디아코니아의 의미.” 『교회교육』. 287. (2001). 2-7.
- 유장춘 (2000). “교회사회복지활동 결정요인으로서 목회자와 그 생태체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장춘 (2001.가을). “교회의 본질성 회복을 위한 디아코니아 연구.” 『복음과 실천』. 275-301.
- 유장춘 (2003). “기독교사회복지의 이념과 실제.” 『시민사회와 종교사회복지』. 학지사.
- 오정수 (2004.10). “교회사회사업의 영성과 세계관.” 『교회사회사업』. 2. 181-194.
- 이만열 (2006). “한국 교회의 가치관.” 손봉호 외 공저 『행하는 자라야』. 서울: IVP.
- 이승렬 (1999.12.4). “한국개신교회 사회봉사의 역사와 그 사회봉사적인 사역의 갱신에 대한 전망: 예장 통합 내에서의 한 사례 연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식』. 제40호. 제176회 연구모임 주제발표.
- 이원규 (2000). 『한국교회 어디로 가고 있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이해풍 (2004). “기독교 사회복지를 위한 교회사회사업의 역할.”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무성 (2005). “한국 기독교사회복지 자원 동원의 쟁점과 과제,”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와 기독교 생명운동』. 서울: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 조홍식·이승열 (2010). “빈곤과 빈곤복지선교의 이해.” 『빈곤복지선교론』. 학지사. 15-47.
- 최무열 (2003.10). “한국교회 사회봉사에 영향을 미친 제 요인에 관한 분석적 소고.” 『교회사회사업』. 1. 207-246.
- 최무열 (2004). 『한국교회와 사회복지』. 개정판 서울: 나눔의 집.
- 한도현·서우석·노연희·이진구 (2006). 『종교와 시민공동체』. 서울: 백산서당.
- 황성동 (2010). 『알기 쉬운 사회복지조사 방법론』. 서울: 학지사.
- 홍정길. (1990). “크리스찬의 생활양식.” 『현대와 크리스찬의 윤리』. 엠마오.
- Brown, L. (2006). *Shining Like Stars*. 김중호 역 (2008). 『역사를 바꾼 복음주의 학생운동 이야기』. 서울: IVP.
- Brown, Peter (1995). *Rise of Western Christendom*. Cambridge, MA: Blackwell. 이종경 역 (2004). 『기독교 세계의 등장』. 서울: 새물결.
- Clements, Ray (n.d). *Masterplan: How God makes sense of the work*. 황영철 역 (1997). 『하나님의 마스터플랜』. 서울: IVP.
- Coleman, R. E. (1995). "What is Revival?." Timothy K. Beougher and Lyle W. Dorsett eds. *Accounts of a Campus Revival*. Wheaton, Ill: Harold Shaw Publishers. 콜먼 R. E., “제1장 부흥이란 무엇인가”. 백금산·예수가족교회 역 (2004). 『1995년 휘튼대학 부흥이야기』.

- 기』. 서울: 부흥과개혁사. 31-58.
- Doka, K. J. and J. D. Morgan (1993). *Death and Spirituality*. 김재영 역 (2006). 『죽음학의 이해: 죽음과 영성』. 고양: 인간사랑.
- Escobar, Donoso (1992). “국제적 차원에서의 사회사업실천”. *Church Social Work: Helping the whole person in the context of the church*. Garland, Diana R., (Ed.). St. David. PA: North American Association of Christians in Social Work.. 이준우 역 (2001). 『교회사회사업』. 서울: 인간과 복지.
- Griswold, Eliza (2010). *Tenth Parallel*. New York: Picador. 유지훈 역 (2011). 『위도 10°: 종교가 전쟁이 되는 것』. 서울: 시공사.
- Horton, Michael S. (2002). *Putting Amazing back into Grace*.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윤석인 역 (2004).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부흥과개혁사.
- Johnson, Paul (2005). *History of Christianity*. Simon and Schuster. 김주한 역 (2005). 『기독교의 역사: 2천 년 동안의 역사』. 서울: 살림.
- Kagawa, Toyohiko (2009). 『우애의 정치학』. 홍순명 역. 홍성: 그물코.
- Lane, A. N. S. (2006). *Christian Thought*.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박오웅·양정호 공역 (2008). 『기독교 인물 사상사건』. 서울: 홍성사.
- Miller, Darrow L. (1994). *Discipling Nations*. Seattle. WA: Baker Book House. 윤명석 역 (2011).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서울: 예수전도단.
- Morris, Ian (2015). *Forages, Farmers, and Fossil Fuel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이재경 역 (2016). 『가치관의 탄생』. 서울: 반디.
- Pasternak, Charles (2003). *Quest: The Essence of Humanity*. John Wiley and Sons. 서미석 역 (2005). 『호모 쿠아에렌스: 자연과학자의 눈으로 본 인류문명사』. 서울: 길.
- Pierson, Paul (1994). *Dismantling of the Welfare State? Reagan, Thatcher, and the Politics of Retrenchmen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박시중 역 (2006). 『복지국가는 해체되는가』.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Rusaw, Rick and Eric Swanson (2004). *The Externally Focused Church*. Group Publishing Inc. 김용환 역 (2008). 『교회 밖으로 나온 교회』.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 Sider, Ronald J. (1996). *Genuine Christianity*. 김선일 역 (1998).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다』. 서울: IVP.
- Sider, Ronald J. (1994). *Cup of Water, Bread of Life*. 이영길 역 (1999). 『물 한 모금, 생명의 떡』. 서울: IVP.
- Sider, Ronald J. (2005). "Evangelism and Social Service".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와 기독교 생명운동』.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8-14.
- Sider, Ronald J. (1990). *Rich Christians in an Age of Hunger*. 한화룡 역 (2009).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 개정판. 서울: IVP.
- Stott, John R. W. (1999). *New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정옥배 역 (2005).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서울: IVP.
- Stott, John R. W. (1989). 『現代基督教 宣教』. 김명혁 역. 서울: 성광문화사.
- Tyndale, Philippa (2004). *Don't Look Back*. Allen & Unwin. 2004. 오희천 역 (2010). 『내가 선택한 길에서 뒤돌아보지 마라』. 서울: 포이에마.
- van Loon, Hendrik Willem (1940). *Tolerance*. Liveright Publishing Corp. 김희숙·정보라 공역 (2000). 『톨레랑스』. 강릉: 길.
- Watkins, D. (1994). *Christian Social Ministry: An Introduction*. 박종욱 역 (2003). 『기독교 사회복지』. 서울: 베드로서원.